

사(史): 시대와 정신-기말보고서

<변화한 인종차별주의·암묵적으로 인정받는 인종차별주의>

201521551 국어국문학과 간다연

1. 들어가며

집단의 신체적 특성이 보다 우세하거나 보다 열세한 인종이라고 확인될 때에 심리적 특성도 그와 같은 식으로 연결 지어 생각하려는 신념이다. 흔히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한다. 인종은 일반적으로 피부색, 골격, 문화적 또는 종족적 특성과 같은 신체적 특성을 가리키는 의미이다.[1]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 속에 암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위의 정의로 말하는 인종차별주의는 같은 흐름 속 다른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즉, 단순히 가시적인 요소가 인종차별주의의 핵심이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문화적 요소를 통해 생기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그 요소는 현대의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의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국면에서 자신과는 다른 존재를 배제하는 행위. 그 경우 이러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개념은 19세기 이래 '인종'의 개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문화적 차이'라는 개념으로 치장이 변화하고 있다. 단,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구조에는 연속성이 있다.[2]이러한 새로운 모습의 인종차별주의는 다문화주의라는 포장지를 이용해 교묘하게 숨어있지만 그 뿌리는 변화하지 않고 남아서 한 번 더 현대사회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국내 이민노동자에 대한 배척감정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인종차별주의가 보인다. 이 새로운 개념의 인종차별주의는 "인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과거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흐름 속에 녹아있고 또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책 <총, 균, 쇠>를 살펴보고 간략히 요약해보면, 책 <총, 균, 쇠>에서 인종차별주의는 "왜 현대 사회는 불균형한 것인가?", "왜 인류의 발전이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등의 세계에서 보이는 분명한 차이와, 그 차이에 대한 의문의 잘못된 하지만 만연하게 자리 잡은 답으로써 제시되어있다. 세계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과학 기술 및 정치 조직의 큰 차이는 선천적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이 주장은 다윈의 이론과 함께 자연선택과 진화적 유전 등의 개념들로 편성되었다. 즉, 원시적인 사람들은 인류가 유인원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진화적 유전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그런 원시적인 사람들을 산업화 된 사회의 이주민들이 정복하고 쫓아내는 것은 적자생존의 실례라는 것이다. 이런 심화된 논리는 "유럽인은 유전적으로 아프리카인보다 지능이 높다."라는 지극히 인종차별적인 논리로 변해 현대사회 속에 스며들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인종차별주의를 제시하면서 오늘날 서양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주의를 공식적으로 배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서양인들은 암묵적으로 인종차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과 함께 발을 맞춰 인종차별주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 속 흐름의 영향으로 그 모습에 있어서의 변화가 찾아왔음을 이해해보고,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 사회 속 보이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과는 모순되어 보이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암묵

적인 인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존재가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사례제시와 분석을 통해 말하고자한다.

2. 새로워진 인종차별주의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회 속, 숨어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사고와 그 사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분석하기에 앞서서 서론에서 짧게 제시했던 인종차별주의의 변화된 모습과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중요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종교적 신념과 문화가 인종차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됐는가 하면, 생물학적 차이나 피부색 등과 연관된 옛 인종 개념에는 잘 맞지 않는 민족과 시민권 같은 개념들도 중요해졌다.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이 언제나 흑인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무슬림에 대해 인종차별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항상 모든 흑인을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다.[3] 즉,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피부색, 골격 등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들이 사람들, 더 나아가 국가 사이의 우열관계 성립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함을 알고 있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입장을 현대사회 속에서 취하는 것이 매우 위험함을 현재 인종차별을 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깨어있는 사회 속에서 당연하게 인종차별을 타파하자는 운동과 정부의 움직임이 강해졌고, 인종차별주의의 꼬집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조의 가치 실현을 위해 등장한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이에 따른 과거 캐나다의 '반 인종차별 국가행동계획(CAPAR)' 등의 많은 반인종차별 정책들이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 속 인종차별주의 또한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의미로 변화하였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새롭게 변화한 인종차별주의는 문화의 차이가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의미의 인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자신의 속한 문화와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만든 우월한 문화의 평가기준으로 타인의 문화를 평가하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문화 중심주의와도 같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 속 분위기와는 다소 다른 막혀져있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문화, 즉 자신이 속해있는 주류문화와 그렇지 않은 비주류 문화인 타인의 문화와의 양립 가능성의 희박함을 앞에 내세우고, 성격이 다른 문화와의 공존을 우려한다. 여기서 자문화 중심주의란 또 다른 주장은 인종이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우월한 인종도 말이 안 되는 생각이지만 문화(또는 문명)의 불평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4] 현재 종교 등의 많은 문화와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와 그런 관계로부터 나오는 테러, 전쟁과 같은 문제 상황들을 직면하고 해결해야할 시점에서 저 주장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저 주장 속에는 분명하게 인종차별주의적인 주장이 숨어있고 저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면 숨어있는 인종차별주의적인 뿌리를 보지 못한 것이다. 즉, 문화 혹은 문명과 관련한 평가와 판단을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로 하나의 집단 더 나아가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저들은 과거 신체적 차이로 우열을 판단한 인종차별주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인종차별을 배척하고자하는 주장이 강력한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적인 사고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살아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은 새로운 의미의 인종차별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3. 인종차별주의의 의미를 변화시킨 배경

위에 언급한 새로워진 인종차별주의의 가장 큰 배경은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를 깊게 이해하기 전에 다문화주의 속 핵심 개념으로 보이는 문화 상대주의를 알아보면 이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위에서 언급한 자문화 중심주의와는 상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5] 즉,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문화요인도 나름대로 존재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위에서 살펴보았던 새로운 인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이런 상대주의적 입장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왜 관련 없어 보이는 인종차별주의를 변화시켰을까? 세계는 소통과 교류의 흐름을 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많은 집단 더 나아가 다양한 국가들의 이념과 문화, 종교 등의 많은 요인들이 세계 속에서 토의되어지고 있고, 교류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 속에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다문화주의의 확산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트로퍼(Troper, 1999)의 정의에 따르면 첫 번째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두 번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세 번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평등한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이 세 가지의 정의로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데 이렇게 세계 속 교류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종의 '충돌' 즉,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명들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흐름 속에서 의도해서든 의도하지 않아서든 이들은 마주쳤고 이 만남이 새로워진 인종차별주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마주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차이는 종교, 이념과도 같은 문화 즉 문명이었고, 이런 사고에서 인종차별이 단순한 가시적인 차이를 넘어서 문화의 차이가 가시화 되었고 그 차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종차별주의가 나타났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의미의 인종차별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는 주장아래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있다.

4. 인종차별주의를 볼 수 있는 사례

이렇듯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한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하고,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웃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 인종차별주의가 뿌리내리고 있을까?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는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인종차별주의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인종차별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탐구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예시는 우리가 많이 접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예술의 영역에 속해지기도 하는 "광고"이다. 광고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단순 홍보의 의미를 넘어서 이념과 사상의 표현으로써 예술의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져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수용자가 느끼기에 독창적인

광고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접하고 관심가지는 현대사회 속 “광고”에서조차 인종차별주의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놀랍게도 광고를 통한 인종차별주의의 표현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러 까지도 끊이지 않게 보였다. 관련된 예전 광고들을 몇 개 살펴보면 비누의 성능을 선전하는 포스터에 “Why does your do not wash you not with her Fairy Soap”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백인 아이는 손에 비누 제품을 들고 흑인 아이에게 이 비누로 씻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까맣고 더럽다는 것을 시사[6]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비누의 성능을 광고하는 포스터를 뛰어넘어 하얀색과 검정색 그리고 비누를 사용한 후 깨끗함으로 하얀색을 비누를 사용하기 전의 더러움을 표현하는 검정색을 동일선상에 제시하면서 인종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와이셔츠를 선전하는 포스터인데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육체노동자인 블루칼라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화이트칼라의 상징이다. 즉, 사회에서 이미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을 지칭하고 있는데 문구에서 이미 5명 중 4명이 이 제품을 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그중 한명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을 등장시킴으로써 흑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7]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 인종차별주의적인 광고는 무엇이 있을까?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 Oréal의 광고로서 모델은 세계적인 팝 여가수인비욘세인데이화장품을쓰기전과후의모습을비교해놓고있다. 흑인인 이 여가수가 화장품을 이용한 후 피부가 하얗게 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이 광고는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고 아름답다는 백인우월주의를 보여주고 있다.[8]비록 이 사례들이 새로워진 즉,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인종차별주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광고”라는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염두에 두고 사고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게 교묘하게 숨긴 인종차별주의가 보여 진다. 흔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인종차별정책 등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비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예시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그린 영화들과 그 영화들속 그려지는 그들의 모습이다. 최근 국내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는 2006년 12월에는 45만 명까지 증가하였다.[9] 이렇듯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그 영향은 새로워진 의미의 인종차별주의를 만들었는데, 국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주제잡고 그들의 삶을 풀어내는 <파이란>, <완득이>, <로니를 찾아서> 등의 영화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만남 즉, 일종의 ‘충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려낸다. 영화 속 외국인은 한눈에 봐도 내국인과의 차이를 눈치 챌 수 있는 외모와 피부색, 종교, 문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행복한 삶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즉,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어두운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들이 외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름을 강조하고 그 점을 아름답고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닌 다르다는 이유로 겪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여 암묵적으로 그들은 부유하지 못하고, 열등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 함께 공존하지 못하여 곁도는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인종차별주의를 인정하고 제시하는 영화들을 사람들은 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다. 분명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들 모두가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영화와 같은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인종차별주의를 암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비춰진다면 이는 훗날 더 심각한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예시는 이민자에 대한 비판적 반응에서 나타난다. 이민자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들을 마주하는 내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다소 인종차별주의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내국인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문화 고유의 정체성과 함께 이민자의 이념과 정치적 색의 주입 그리고 종교의 충돌로 인한 극단적인 문제 상황들을 우려하면서 이민자들과 함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배척하는 입장 속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인종차별주의적인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하나의 예시로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겨냥한 문화적 국수주의가 있다. 한 종교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고 일반화하여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험인물', '배척해야할 인물' 등의 범죄자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문화를 일반화하고 혐오하면서 이들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인종도 다른 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지는 않지만 인종 간 차이가 존재하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4. 나오며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종차별주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된 모습을 취해왔고, 이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한다. 더 이상 외관적 차이를 들먹이며 우열관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알고, 세계가 알고 있다. 이런 흐름 속 문화라는 기준을 내세워 변화하는 인종차별주의를 주목해야하고, 변화양상과 그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고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책 <총, 균, 쇠>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주의,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현대에 와서 인종차별주의의 의미가 물론 변화하긴 했지만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하고 또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변화한 세계의 양상과 그 양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암묵적으로 인종차별주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책 <문명의 충돌>에서 말하는 문화 즉, 문명이 주는 소속감과 상징성이 세계가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볼 가치가 있다. 책 <문명의 충돌>을 살펴보면 "냉전시대를 지나 세계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모델 즉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말하고 이런 필요성의 주장으로 새롭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지금 상황에서 또 문명, 문화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앞세워 자신과 다른 타인의 문화 정체성을 보면서 자신의 문화적 위치를 파악하는 지금 시점에서 문명의 크고 작을 융합과 공존 그리고 갈등은 변화하여 새로워진 인종차별주의와 절대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한다. 정리하자면 문명, 문화의 정체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 차이가 크고 작은 충돌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책 <문명의 충돌>과 현대의 변화와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보이는 불균형을 즉 차이를 꽤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적인 사고로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책 <총, 균, 쇠> 이 두 개의 주장 모두 타당하고 일리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책 <총, 균, 쇠>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주의의 의미는 신체적인 차이만을 말하고 있지만 이 이념의 본질적인 개념은 사라지지 않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만의 변화이기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 속 살아가는 우리는 문화의 차이로 나타나는 인종차별임을 직시하고, 그런 인종차별주의가 나타나게된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마주할 많은 문명의 충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반드시 성찰해야한다.

<참고문헌>

- [1]-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 8. 15., Blue Fish, <네이버 지식백과>, "인종차별", 15.12.0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2029&cid=42120&categoryId=42120>>
- [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인종차별", 15.12.0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2256&cid=40942&categoryId=32856>>
- [3]- 리처드 시모어, 『변모하는 인종차별』, 책갈피, 2011, 117쪽
- [4]-리처드 시모어, 『변모하는 인종차별』, 책갈피, 2011, 181쪽
- [5]-<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문화적상대주의", 2015.12.3.,
- [6]-정일영, 『광고 속에 나타나는 인종차별주의 성향에 관한 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58쪽
- [7]-정일영, 『광고 속에 나타나는 인종차별주의 성향에 관한 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64쪽
- [8]-정일영, 『광고 속에 나타나는 인종차별주의 성향에 관한 분석』,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65쪽
- [9]-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74쪽
- [10]-총, 균, 쇠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사, 2005
- [11]-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역, 김영사, 1997